

지역 소식통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 최우수기관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시는 매년 기업 친화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전담 공무원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기업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제조 혁신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사업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며 지역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3년 연속 최우수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도내 최초 3년 연속 최우수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재정 인센티브 6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수상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밀착형 행정과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고창군은 기업애로 해소, 신속한 행정지원,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또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생물가 안정 '총력'

이학수 시장, 중동발 불안에 유가 상승 대응... 주유소·착한가격업소 현장 방문

정읍시, 중동발 유가 불안에 주유소 및 착한가격업소 현장 방문정읍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자 지난 23일 관내 주유소와 착한가격업소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증진의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국제 정세 불안이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내 건전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먼저 관내 주유소를 찾은 이학수 시장은 유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 현장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 시장은 주유소 관계자들에게 유가 상승기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착한가격업소에서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주들을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상생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시는 현장 점검과 병행해 인근 상권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합리적인 소비 참여를 독려하는 물가 안정 캠페인도 전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7월 1일부터 시행... 관내 주요 항·포구 내 어업인 대상 홍보·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부안읍, 격포, 곰소, 가력항 등 주요 항·포구 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선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가두 홍보와 현수막 부착 활동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



무화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최근 어업 및 낚시 활동 증가로 어선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상 안

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상 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미래 설계 할 2027·28 국가예산 신규사업 대거 발굴

고창군이 지난 23일 고창군수 주제 2027·28 국가예산 4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4차까지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총 124건 9,317억원 규모로 이 중 '27년 사업은 83건 6,064억원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해리면 지

역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고창 노동골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다.

특히, 고창군은 지특회계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과 관련하여 '지특회계 대응 국가예산 발굴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여 건의 국가예산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군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성이 높고 군민 체감도가 큰 '육식 사업'을 선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군은 매년 3~5월까지 부처 예산편성 작업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1월부터 부처를 조기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오는 4월 말까지 일제 출장을 통해 발굴된 사업을 부처와 전북자치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4개 분과 청년 협의체 '가동'

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소통·문화 등 총 4개 분과 활동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제 행정 시책에 담아내기 위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향후 운영 방향 공유, 분과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출범한 청년협의체는 대학생·직장인·창업가·농업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관내 청년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소통·문화 등 총 4개 분

과로 나누어 활동하며 지역 청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는 협의체 위원들의 제안이 단순한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발굴된 아이디어를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제 행정 사업으로 구체화해 정책 체감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청년 위원은 "지역 청년들이 미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정책에 직접 녹여낼 기회가 주어져 뜻깊다"며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0만 인구 사수 위한 협력 강화

관내 유관기관 찾아가는 캠페인 활동... 인구 문제 적극 대응 나서

정읍시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다송학교와 정읍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기관장 면담을 진행하고 정읍시의 전입 활성화 지원 시책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유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시는 주요 해택으로 전입 유공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전입 지원금 확대 시행, 전입 청년 이사 비용 지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소속 직원들의 정읍 전입을 독려했다.

특히 현재 관사를 이용하거나 정읍에 실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전입할 수



있도록 사내 소통망을 활용한 기관 자체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인구 유입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부서 1기관 전담 홍보제'를 운영하고 마을별 실거주 미전입자를 적극 파악하는 등 인구 유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혜택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